

2022년도 제20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문제



1 교시

국어·헌법·경제학

응시번호 :

성명 :

시험시간 및 향후일정 안내

- ❖ 시험 시간 : 14:00 ~ 15:25
- ❖ 정답 가안 발표 : 2022. 4. 23.(토) 21:00
- ❖ 정답 이의 제기 : 2022. 4. 25.(월) 09:00 ~ 27.(수) 17:00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2. 5. 20.(금)

국 회 사 무 처

국회채용시스템 : <http://gosi.assembly.go.kr>

국 어

1. <보기>의 ㄱ~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우리 사무실은 도심에 있어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
 ㄴ. 천세나 만세를 누리소서!
 ㄷ. 그 일은 어제 끝냈어야 했다.
 ㄹ. 넷에 넷을 더하면 여덟이다.
 ㅁ. 한창 크는 분야라서 지원자가 많다.

- ① ㄱ의 ‘비교적’은 관형사이다.
 ② ㄴ의 ‘만세’는 명사이다.
 ③ ㄷ의 ‘어제’는 부사이다.
 ④ ㄹ의 ‘여덟’은 수사이다.
 ⑤ ㅁ의 ‘크는’은 동사이다.

2. 밑줄 친 말 중 문법적 기능이 다른 것은?

- ① 그것참, 신기하군그래.
 ② 그를 만나야만 모든 원인을 밝힐 수 있다.
 ③ 그것이 금덩이라도 나는 안 가진다.
 ④ 얼마 되겠느냐마는 살림에 보태어 쓰도록 해.
 ⑤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출목을 무사히 넘겼다.
 → 일의 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② 그 사람들도 선걸음으로 그리 내달았다.
 → 이미 내디뎠고 있는 그대로의 걸음
 ③ 겨울 동안 갈무리를 했던 산나물을 팔았다.
 → 물건 따위를 잘 정리하거나 간수함
 ④ 그는 인물보다 맨드리가 쓰레기꾼 축에 섞이기는 아까웠다.
 → 옷을 입고 매만진 맵시
 ⑤ 그녀는 잔입으로 출근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 음식을 조금만 먹음

4. 어법에 맞는 문장은?

- ① 그 회사는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이다.
 ② 내 생각은 네가 잘못을 인정하면 해결될 것이다.
 ③ 지도자는 자유 수호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무 지표 현황과 개선 계획을 수립,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이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 무엇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5. 다음 글의 논지와 가까운 것은?

괴테는 인간의 목표가 각자의 개성과 존엄성을 통해 보편성에 이르는 데 있다고 보았다. 즉 그는 자연이라는 근원에서 나온 개체에 대해서는 자연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였지만, 개체와 근원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단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그리하여 나폴레옹이 그의 조국을 점령하였을 때에 그는 피히테만큼 열성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다. 물론 그도 자기 민족의 자유를 원했고 조국에 대해 깊은 애정을 표시했지만, 그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은 것은 인간성이나 인류와 같은 관념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괴테는 집단의식보다는 개인의 존엄성을 더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집단에 속한 채 살아야 하는 현대인에게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떠오른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다수의 논리를 내세워 개인의 의지를 배제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효율성의 원칙만을 내세워 집단을 개인의 우위에 두면 ‘진정한 인간성’이 개발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이 조직 사회에 종속됨으로써 정신적 독립성을 잃게 되는 위험성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괴테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그는 현대의 공기를 마셔 보지 않았지만 대단히 현대적인 시각에서 우리에게 충고를 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무서운 드라마를 끝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진정한 인간성’을 추구해야 한다. 물질적 편리함을 위해 정신적 고귀함을 간단히 양보해 버리고, 집단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순수성을 쉽게 배제해 버리는 세태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혼을 가진 인간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순수하고 고결한 인간성을 부르짖는 괴테의 외침은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져 가는 오늘날의 심각한 병폐를 함께 치유하자는 세계사적 선서의 의미를 지닌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진정한 인간성’을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현대 사회의 비인간화 현상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 ① 개인과 집단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없다.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이며, 개인의 이익이 집단의 이익이다.
 ② 개인이 집단의 목적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민주 시민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비판이 없는 집단은 자기 발전이 없다.
 ③ 개인의 존엄성은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도 자기 목소리만을 높일 것이 아니라 집단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진정한 인간성은 이기주의와는 다르다. 개인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주장하여 운영에 차질을 주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⑤ 다수의 논리를 내세워 개인의 의지를 꺾는 것도 잘못이지만, 개인의 의지가 다수의 논리를 무시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6. <보기>의 관점에서 ㉠을 비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람들은 제1 언어 습득 연구에 대한 양극단 중 하나의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 행동주의자적 입장은 어린이들이 백지 상태, 즉 세상이나 언어에 대해 아무런 전제된 개념을 갖지 않은 깨끗한 서판을 갖고 세상에 나오며, 따라서 어린이들은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다양하게 강화된 예정표에 따라 서서히 조건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반대쪽 극단에 있는 구성주의의 입장은 어린이들이 매우 구체적인 내재적 지식과 경향, 생물학적 일정표를 갖고 세상에 나온다는 인지주의적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주로 상호 작용과 담화를 통해 언어 기능을 배운다고 주장한다. 이 두 입장은 연속선상의 양극단을 나타내며, 그 사이에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다.

<보 기>

생득론자는 언어 습득이 생득적으로 결정되며, 우리는 주변의 언어에 대해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언어의 내재화된 체계를 구축하는 유전적 능력을 타고난다고 주장한다.

- ① 언어 습득에 대한 연구에서 실제적 언어 사용의 양상이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
- ② 아동의 언어 습득을 관장하는 유전자의 실체가 확인될 때까지는 행동주의는 불완전한 가설일 뿐이다.
- ③ 아동은 단순히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 ④ 아동의 언어 습득은 특정 언어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핵심 과정인데, 행동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아동의 언어 습득이 외적 자극인 환경에 의해 전적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행동주의 모델은 배우거나 들어본 적 없는 표현을 만들어내는 어린이 언어의 창조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7. ‘도산 노인’의 생각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도산십이곡」은 도산 노인이 지은 것이다. 노인이 이를 지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나라의 가곡은 대체로 음란하여 죽히 말할 것이 없으니 「한림별곡」과 같은 것도 문인의 입에서 나왔으나, 교만하고 방탕하며 겸하여 점잖지 못하고 장난기가 있어 더욱 군자가 숭상해야 할 바가 아니다. 다만 근세에 이별의 「육가」라는 것이 있어 세상에 성대하게 전해지는데, 저것보다 낫기는 하나 또한 세상을 회롱하는 불공한 뜻만 있으며, 온유돈후의 실질이 적은 것을 애석하게 여겼다.

노인은 평소 음악을 이해하지는 못하나 오히려 세속의 음악이 듣기 싫은 것을 알아, 한가히 살면서 병을 돌보는 여가에 무릇 성정에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매양 시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는 달라서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로 부를 수는 없다. 만약 노래로 부르려면 반드시 시속의 말로 엮어야 되니, 대개 우리나라 음절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일찍이 대략 이별의 노래를 본떠 도산육곡이란 것을 지은 것이 둘이니, 그 하나는 언지(言志)이고 다른 하나는 언학(言學)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익혀서 노래하게 하여 안식에 기대어 이를 듣고자 했다.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하고 춤추고 뛰게 한다면, 비루하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느낌이 일어나 두루 통하게 될 것이니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함이 없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나의 자취가 자못 어그러졌으니, 이 같은 한가한 일이 혹시나 시끄러운 일을 야기하게 될지 모르겠고, 또 곡조에 없었을 때 음절이 맞을지도 알 수 없어 우선 한 부를 베껴 상자 속에 담아 두고, 때때로 꺼내 완상하여 스스로를 반성하며, 또 훗날에 보는 자가 이를 버리거나 취하기를 기다릴 따름이다.

- 이황, 「도산십이곡발」 -

- ① 우리말 노래가 대체로 품격이 떨어진다고 보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 ② 우리나라에서 한시를 노래로 부르는 전통을 되살리려고 한다.
- ③ 자신이 지은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에게도 유익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④ 자신이 노래를 지은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 ⑤ 자신이 지은 노래가 후세에 전해져서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을 기대한다.

8.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는 두 마리의 두꺼비를 키우셨다

해가 말끔하게 떨어진 후에야 퇴근하셨던 아버지는 두꺼비부터 씻겨 주고 늦은 식사를 했다 동물 애호가도 아닌 아버지가 녀석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 나는 녀석을 시샘했었다 한번은 아버지가 녀석을 껴안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살짝 만져 보았다 그런데 녀석이 독을 뱉어내는 통에 내 양 눈이 한동안 충혈되어야 했다 아버지, 저는 두꺼비가 싫어요

아버지는 이윽고 식구들에게 두꺼비를 보여주는 것조차 꺼리셨다 칠순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날이 새기 전에 막일판으로 나가셨는데 그때마다 잠들어 있던 녀석을 깨워 자전거 손잡이에 올려놓고 페달을 밟았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아버지는 지난 겨울, 두꺼비집을 지으셨다 두꺼비와 아버지는 그 집에서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 봄이 지났으나 잔디만 깨어났다

내 아버지 양 손엔 우툴두툴한 두꺼비가 살았었다

- 박성우, 「두꺼비」 -

- ① 화자가 ‘아버지, 저는 두꺼비가 싫어요’라고 말한 것은 아버지의 고생스러운 삶에서 서러움과 연민을 느꼈기 때문이다.
- ② 이 시는 아이의 시선과 동요의 가사를 활용하여 아버지의 희생적인 삶을 돌아보게 하면서 감동을 주고 있다.
- ③ 이 시는 첫 줄과 마지막 줄에 제시된 아버지와 두꺼비의 호응 관계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이 시에서 ‘두꺼비’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식들을 의미한다.
- ⑤ ‘아버지는 그 집에서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는 표현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신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육체는 비물질적 실체인 영혼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영혼이 때때로 유령이나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이론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다. 그 유령이 어떻게 유형의 물질과 상호 작용하는가? 무형의 비실체가 어떻게 번쩍이고 쿵 찌르고 뿜 소리를 내는 외부 세계에 반응하고 팔다리를 움직이게 만드는가? 그뿐 아니라 정신은 곧 뇌의 활동임을 보여 주는 엄청난 증거들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다. 오늘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비물질적이라 생각했던 영혼도 칼로 해부되고, 화학물질로 변질되고, 전기로 나타나거나 사라지고, 강한 타격이나 산소 부족으로 인해 소멸되곤 한다. 현미경으로 보면 뇌는 풍부한 정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대단히 복잡한 물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

정신을 어떤 특별한 형태의 물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피노키오는 목수 제페토가 발견한, 말하고 웃고 움직이는 마법의 나무에서 생명력을 얻는다. 그러나 애석한 일이지만 그런 신비의 물질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우선 뇌 조직이 그 신비의 물질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윈은 뇌가 정신을 ‘분비한다’고 적었고, 최근에 철학자 존 설은 유방의 세포 조직이 젖을 만들고 식물의 세포 조직이 당분을 만드는 것처럼, 뇌 조직의 물리화학적 특성들이 정신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뇌종양 조직이나 접시 안의 배양 조직은 물론이고 모든 동물의 뇌 조직에도 똑같은 종류의 세포막, 기공, 화학물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그 모든 신경세포 조직이 동일한 물리화학적 특성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들 모두가 인간과 같은 지능을 보이진 않는다. 물론 인간 뇌를 구성하는 세포 조직의 어떤 측면이 우리의 지능에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물리적 특성들로는 충분하지 않다. 벽돌의 물리적 특성으로는 음악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한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신경세포 조직의 ‘패턴’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

- ① 다윈과 존 설은 뇌 조직이 인간 정신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 ②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세포 조직의 물리적 특성은 인간 지능의 필요충분조건이다.
- ③ 지능에 대한 전통적 설명 방식은 내적 모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 ④ 뇌의 물리적 특성보다 신경세포 조직의 ‘패턴’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
- ⑤ 뇌와 정신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가 있다.

10. <보기>는 국어 단모음 체계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ㅣ	ㅡ	ㅏ		ㅣ	ㅡ	ㅏ		ㅣ	ㅑ	ㅡ	ㅏ
	ㅑ	ㅓ		ㅑ	ㅓ	ㅓ		ㅑ	ㅓ	ㅓ	ㅓ
	ㅕ	ㅗ	⇒	ㅕ	ㅗ		⇒	ㅕ		ㅗ	
[15세기]				[19세기 초]				[현재]			

- ① 모음들이 연쇄적으로 조음 위치의 변화를 겪는 현상이 발견된다.
- ② 국어 역사에서 후설 저모음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 ③ 단모음의 개수는 점차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④ 모음 중에서 음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있다.
- ⑤ 일부 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발견된다.

11. (가)~(마)를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 (가) 작센의 아우구스투스 2세는 독일 마이센 성의 연금술사인 요한 프리드리히 뵘거를 가두고 황금을 만들라 명한다. 하지만 실패를 거듭하자 아우구스투스는 화학 반응으로 금을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금과 맞먹는 대체품으로 백자를 만들라 명령한다. 뵘거는 백자를 만들기 위해 대리석이나 뿔가루를 사용했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그는 1708년, 3년 만에 마이센에서 고령토 광산을 발견했고 장식 성분을 추가해 백자의 성분 문제를 해결한다.
- (나) 18세기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은 상류층에서 살롱 문화가 급속하게 번진다. 살롱에서 담론을 펼칠 때 아프리카 커피와 중국 차를 마시는 게 최고의 호사였으며, 백자는 거기에 품격을 더했다. 하지만 백자를 만드는 기술은 중국인들만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유럽은 비싼 가격을 중국에 지불하면서 백자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 (다) 또 발터 폰 치른하우스의 도움으로 렌즈와 거울을 이용한 1400도 가마가 가능해졌다. 하늘에서의 고온과 땅에서의 고령토, 그러니까 천지의 조화를 통해 백자가 만들어졌고, 뵘거는 이 결과를 기록에 남겼다. 이후 마이센의 백자 기술이 오스트리아 빈,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덴마크 코펜하겐, 이탈리아 피렌체, 영국 런던 등으로 유출되면서 백자의 유럽 생산 시대가 열렸다.
- (라) 이탈리아의 메디치 포슬린을 비롯하여 유럽 각지에서 백자를 만들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흰색을 내는 온갖 재료를 사용했지만 유리를 섞어 만드는 수준이었다. 실패의 원인은 백자의 주원료인 고령토를 알지 못했고, 1100도 이상의 가마를 만들지 못했던 데 있다. 중국 백자의 제조 비밀은 유럽의 과학기술도 밝혀내지 못했던 것이다.
- (마) 17세기 유럽 전역에 백자의 인기가 폭발적이었다. 중국의 백자가 유럽에 들어오자 ‘하얀 금’이라 불리며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다.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은 백자를 비롯한 중국적 취향을 ‘시누아즈리’라면서 바로크나 로코코 양식과 결합시킨다.

- ① (가)-(다)-(나)-(라)-(마)
- ② (가)-(다)-(마)-(나)-(라)
- ③ (가)-(마)-(라)-(나)-(다)
- ④ (마)-(가)-(다)-(라)-(나)
- ⑤ (마)-(나)-(라)-(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2. ~ 문 13.]

- (가) ‘테라포밍’은 지구가 아닌 다른 외계의 천체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까지 최적의 후보로 꼽히는 행성은 바로 화성이다. 화성은 육안으로도 붉은 빛이 선명하기에 ‘火(불 화)’ 자를 써서 화성(火星)이라고 부르며, 서양에서는 정열적인 전쟁의 신이기도 한 ‘마르스’와 함께 ‘레드 플래닛’, 즉 ‘붉은 행성’으로도 일컬어진다. 화성이 이처럼 붉은 이유는 표면의 토양에 철과 산소의 화합물인 산화철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 녹슨 쇠가 불그스름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로 보면 된다. 그렇다면 이런 녹슨 행성인 화성을 왜 ‘테라포밍’ 1순위로 선정했을까? 또 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화성을 인간이 살 수 있는 푸른 별로 바꿀 수 있을까?
- (나) 영화 「레드 플래닛」을 보면 이런 ‘테라포밍’의 계획이 잘 나타나 있다. 21세기 초, 자원 고갈과 생태계 오염 등으로 지구의 환경이 점점 악화되자, 화성을 새로운 인류의 터전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끼 종자를 가득 담은 무인 로켓이 화성으로 발사된다. 이끼가 번식해 화성 표면을 덮으면 그들이 배출하는 산소가 모여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호흡할 수 있는 대기층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50여 년 후, 마침내 화성에 도착한 선발대는 희박하기는 하지만 화성의 공기가 사람이 숨 쉴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음을 알게 된다.
- (다) 그렇다면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화성을 변화시키는 일은 가능할까? 시간이 걸리고 힘든 일이지만 가능성은 있다. 화성의 극지방에는 ‘극관’이라고 부르는 드라이아이스로 추정되는 하얀 막 같은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녹여 화성에 공기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극관에 검은 물질을 덮어 햇빛을 잘 흡수하게 만든 후 온도가 상승하면 극관이 자연스럽게 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 검은 물질을 자기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만들면 소량을 뿌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극관 전체를 덮게 될 것이다.
- (라) 자기 복제가 가능한 검은 물질이 바로 「레드 플래닛」에 나오는 이끼이다. 유전 공학에 의해 화성처럼 혹독한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지의류 같은 이끼의 변종을 만들어 내어 화성의 극관 지역에 투하한다.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성공적으로 번식할 경우 서서히 태양광선 흡수량이 많아지고 극관은 점점 녹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택하더라도 인간이 직접 호흡하며 돌아다니게 될 때까지는 최소 몇 백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 (마)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지만 인류는 언제나 불가능한 일들을 불굴의 의지로 해결해 왔다. 화성 탐사선이 발사되고 반세기가 안 된 오늘날 인류는 화성을 지구 환경으로 만들 꿈을 꾸고 있다. 최소 몇 백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이 ‘테라포밍’도 언젠가는 인류의 도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아주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은 화성을 볼 때, 붉게 빛나는 별이 아니라 지구와 같은 초록색으로 반짝이는 화성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때에는 화성을 ‘녹성(綠星)’ 또는 ‘초록별’이라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되지 않을까?

12.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나): 예를 통해 화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다): 화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라): 귀납을 통해 화제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 ⑤ (마): 화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13. ‘테라포밍’ 계획의 핵심이 되는 최종적인 작업은?

- ① 화성의 극관을 녹이는 일
- ② 인류가 화성에 이주하는 일
- ③ 화성에 대기층을 만드는 일
- ④ 화성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일
- ⑤ 극관을 검은 물질로 덮는 일

14. ㉠~㉣의 외래어 표기법 규정 중 <보기>의 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것은?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표기 일람표

제3장 표기 세칙

제4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제1절 표기 원칙

제2항 ㉢제3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 지명은 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원지음이 아닌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따른다.

제4항 ㉤고유 명사의 번역명이 통용되는 경우 관용을 따른다.

<보 기>

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오늘부터는 우크라이나 지명을 러시아어가 아닌 우크라이나어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수도인 키예프는 ‘키이우’로, 제2의 도시 하리코프는 ‘하르키우’로, 서부의 리비프는 ‘르비우’로 바꿔 부릅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가 울성쉴다.
- ② 자네가 이야기를 좀 하게나그려.
- ③ 집을 떠나온 지 어언 3년이 지났다.
- ④ 북도에서 친구가 먼저 나에게 알은척했다.
- ⑤ 그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업 차 외국에 나갔다.

16. 밑줄 친 용언의 활용이 옳은 것은?

- ① 벼가 익으니 들판이 누래.
- ② 그는 시장에 드르지 않고 집에 왔다.
- ③ 아이들은 기단 작대기 끝에 형겼을 매달았다.
- ④ 추위에 손이 고와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다.
- ⑤ 그가 내 옆구리를 넙다 질르는 바람에 눈을 떴다.

17.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한자 성어로 바꾸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무릇 지도자는 항상 귀를 열어 두어야 한다. 만약 정치를 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도 주위의 충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아집의 정치를 행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아집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실은 숨길 수 없고 거짓은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주변의 충고를 듣지 않는 지도자는 결국 ㉢순리와 정도에서 벗어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강행하는 우를 범하기가 쉽다. 대개 이런 지도자 주변에는 충직한 사람이 별로 없고, ㉣지도자의 눈을 가린 채 지도자에게 제멋대로 조작되거나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고 지도자의 힘을 빌려 권세를 휘두르려고만 하는 무리만이 판을 칠 뿐이다.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그 나라는 ㉤혼란과 무질서와 불의만이 판을 치는 혼탁한 상태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 ① ㉠: 호질기의(護疾忌醫)
- ② ㉡: 장두노미(藏頭露尾)
- ③ ㉢: 도행역시(倒行逆施)
- ④ ㉣: 지록위마(指鹿爲馬)
- ⑤ ㉤: 파사현정(破邪顯正)

18. 다음 글에서 말하는 ‘그릇’ 도식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존슨의 상상력 이론은 ‘영상 도식(Image Schema)’과 ‘은유적 사상(Metaphorical Mapping)’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영상 도식이란 신체적 활동을 통해 직접 발생하는 소수의 인식 패턴들이며, 시대와 문화를 넘어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인식의 기본 패턴들이다. 존슨은 ‘그릇(Container)’, ‘균형(Balance)’, ‘강제(Compulsion)’, ‘연결(Link)’, ‘원-근(Near-Far)’, ‘차단(Blockage)’, ‘중심-주변(Center-Periphery)’, ‘경로(Path)’, ‘부분-전체(Part-Whole)’ 등의 영상 도식을 예로 들고 있다. 우리는 영상 도식들을 물리적 대상은 물론 추상적 대상들에 ‘사상(Mapping)’함으로써 사물을 구체적 대상으로 식별하며, 동시에 추상적 개념들 또한 구체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릇’ 도식을 방이나 건물 같은 물리적 대상에 사상함으로써 그것들을 안과 밖이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또 ‘그릇’ 도식을 꿈이나 역사 같은 추상적 대상에 사상함으로써 ‘꿈속에서’나 ‘역사 속으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① 사랑받는 사람의 심장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 ② 원수를 기다리는 그의 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 ③ 전화기에서 들려온 말은 나를 두려움 속에 몰아넣었다.
- ④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의 진전 없이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 ⑤ 지구의 반대편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드디어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1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보이는 거리의 나무 의자에 앉아서도 마 찬가지였다. 처음 얼마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토요일 오후의 인 파가 동생과 동생 친구의 옆으로 흘러넘쳤다. 나무 의자들 앞쪽, 공중전화 부스도 전부 사람들로 메워졌다. 둘의 기분은 아주 우 울했다. 즐거운 일이 없었다. 둘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치 명적인 질병에 걸려 헤어나지 못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날 친구는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다.

“나는 협박과 유혹을 받고 있다.”

그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다. 얼굴을 들 때는 지나치게 심각해 보였다.

“왜 그래?”

동생이 물었다. 친구는 바짝 다가앉으며 말했다.

“박쥐 때문야.”

“박쥐라니?”

“벌써 잊었니?”

동생은 소스라치듯 물었다.

“그는 대학에 있잖아.”

“그가 나를 협박하고 있어.”

“어디서?”

“신문을 봐야 알지. 그가 우두머리가 돼 왔어.”

“벌어먹을!”

동생이 소리쳤다.

전화 차례를 기다리던 몇 사람이 둘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이 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고개를 돌렸다.

“사실, 놀랄 일은 아닌데.”

동생도 친구의 얼굴을 닮아 가며 말했다.

“그다운 결정 아냐?”

“물론 그래.”

“그런데 네가 그에게서 받는 협박은 어떤 거야?”

“나를 자기와 가까운 자리에 앉히려는 거야.”

침울한 목소리였다. 동생은 할 말을 잃었다. 친구가 이야기했다.

“그가 나를 불렀을 때 나는 참을 수 없었어. 과장이 오히려 놀 라워하며 급히 가보라고 해 나는 그의 방으로 갔었지. 다들 부러 워하는 눈치였어. 그런데도 나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는 그의 방 바로 그 앞에서 마음 문은 더욱 굳게 닫히고, 하늘처럼 높아야 할 제일 우두머리는 위선적인 인간, 기회주의자, 그리고 우리를 짓밟은 꼬나풀이라는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 그는 웃고 있 었어. 나의 손을 잡아 흔들면서 말야. ‘지난 얘기지만 나는 대학 에 있을 때부터 자네가 훌륭한 젊은이라는 점을 인정했었지. 물 론 자네의 약점이 어떤 건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지난 이야기는 그만하구, 다음 주부터 이 옆방으로 와 일해 주게.’ 알겠니? 그러 면 자기가 나를 끌어주겠다는 거야.”

이때의 친구는 아주 짧은 동안 동생이 처음 보는 표정을 지었다.

“간단히 말해 한편이 되자는 거야.”

하고 동생의 친구는 말했다.

“그는 너의 이용 가치를 생각한 거다.”

이번에는 동생이 말했다.

“학교에서 우리를 괴롭힌 인간이 밖에서 달라져야 될 까닭은 없잖아?”

“없지.”

“그는 너에게서 뭘 원하는 걸까?”

“그야 충성이지. 자기가 못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를 테구.”

- 조세희, 「육교 위에서」에서 -

- 동생과 동생의 친구는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동생과 동생의 친구는 대학에 다닐 때부터 ‘박쥐’로 불리는 ‘그’를 알고 있었다.
- ‘박쥐’로 불리는 ‘그’는 대학에 있을 때 동생과 동생의 친구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주었다.
- 동생은 자신의 친구가 ‘박쥐’로 불리는 ‘그’의 제안에 동의하는 것 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 동생은 ‘박쥐’로 불리는 ‘그’가 동생의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우두 머리로 부임해 온 것을 신문에서 보았다.

20. 어문 규범에 맞는 문장은?

- 다음 주에 뵈요.
- 아이들이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다.
-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술을 마신 다음날 그는 북어국을 먹었다.
- 네가 그 내용을 요약토록 해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21. ~ 문 22.]

그것은 알렉산드르 2세가 통치하던 최근의, 우리 시대의 일이었다. 그 시대는 문명과 진보의 시대이고, ㉠제반 문제점들의 시대, 그리고 러시아의 ㉡부흥 등등의 시대였다. 또한 불패의 러시아 군대가 적군에게 내어준 세바스토폴에서 돌아오고, 전 러시아가 흑해 함대의 괴멸에 축전을 거행하고, 하얀 돌벽의 모스크바가 이 기쁜 사건을 맞이하여 이 함대 승무원들의 생존자들을 영접하고 경축하며, 그들에게 러시아의 좋은 보드카 술잔을 대령하며, 러시아의 훌륭한 풍습에 따라 빵과 소금을 대접하며 그들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던 때였다. 또한 그때는 ㉢형안의 신인 정치가와 같은 러시아가 소피아 사원에서 기도를 올리겠다는 꿈이 깨어짐에 슬퍼하고, 전쟁 중에 사망하여 조국의 가슴을 가장 미어지도록 아프게 한 위대한 두 인물(한 사람은 위에 언급된 사원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기도를 하고자 하는 열망에 불탔던 사람으로 발라히야 들판에서 전사했는데, 그 별판에 두 기병중대를 남겼다. 다른 한 사람은 부상자들에게 차와 타인의 돈과 시트를 나누어주었지만 아무 것도 훔친 것은 없었던 훌륭한 사람이었다.)의 상실을 슬퍼하고 있을 때였다. 또한 그것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를테면 사령관들, 행정관들, 경제학자들, 작가들, 웅변가들, 그리고 특별한 사명이나 목적은 없지만 그래도 위대한 사람들이 사방에서,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에 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을 때였다. 또 모든 범죄자들을 ㉣응징하기 시작한 사회 여론이 모스크바의 배우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축배사로 올려 퍼질 만큼 확고히 된 때이다. 페테르부르크에서 구성된 ㉤준엄한 위원회가 악덕 위원들을 잡아서 그들의 죄상을 폭로하고 처벌하기 위해 남쪽으로 달려가던 때이고, 모든 도시에서 세바스토폴의 영웅들에게 연설을 곁들여 오찬을 대접하고 팔과 다리를 잃은 그들을 다리 위나 거리에서 마주치면 코페이가 은화를 주곤 하던 때였다.

- 톨스토이, 「데카브리스트들」에서 -

21. 밑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두 개의 특수한 대상에서 어떤 징표가 일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시대적 상황을 서술하기 위해 다양한 사건을 나열하고 있다.
- ③ 어떤 일이나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다.
- ④ 인물의 행동 변화 과정을 통해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⑤ 저자의 판단이 참임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2. 밑줄 친 ㉠~㉤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것과 관련된 모든 것
- ② ㉡: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 ③ ㉢: 빛나는 눈
- ④ ㉣: 잘못을 깨우쳐 뉘우치도록 징계함
- ⑤ ㉤: 태도나 상황 따위가 튼튼하고 굳음

23. 다음 글을 토대로 하여 인물 간의 관계를 예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행에서 상생이란 기르고, 북돋우고, 촉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상극이란 억압하고, 구속하고, 통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오행 사이에는 모두 상생과 상극의 관계가 존재한다. 상생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물의 발전과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상극 관계가 없으면 사물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중에 균형과 조화를 유지할 수 없다. 상생 관계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고 상극 관계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이다.

「서유기」의 등장인물은 오행의 생극 관계로 형상화되어 있다. 작품에서 삼장은 오행 가운데 수에 속한다. 삼장과 상생 관계에 있는 인물은 목인 저팔계이고 상극 관계에 있는 인물은 화인 손오공이다. 삼장이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저팔계를 편애하는 것은 그들이 상생 관계에 있기 때문이고, 손오공에게 각박한 것은 상극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장과 손오공 사이에는 상극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 관계도 존재한다. 손오공은 화인 동시에 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금이 수를 낚는 상생 관계이므로 손오공과 삼장 사이는 상호 보완의 관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손오공은 서행 길을 가는 동안 삼장의 앞길을 가로막는 요괴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삼장이 미망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마다 그를 정신적으로 인도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마지막으로 사오정은 오행에서 토에 속한다. 사오정은 참을성 많고 침착하며 사려 깊은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① 손오공과 저팔계 사이에는 상생 관계가 존재한다.
- ② 손오공과 저팔계 사이에는 상극 관계가 존재한다.
- ③ 손오공과 사오정 사이에는 상극 관계가 존재한다.
- ④ 삼장과 저팔계 사이에는 상생 관계가 존재한다.
- ⑤ 사오정과 저팔계 사이에는 상극 관계가 존재한다.

2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데이터 권력은 역사의 객관적이고 원본에 입각한 사실 기록의 방식과 해석에도 심각한 변화를 일으킨다. 디지털 기록은 알고리즘 분석을 위해 축적되는 자료에 불과하고, 개별의 구체적 가치와 질감을 거세한 무색무취의 건조한 데이터가 된다. 이용자들의 정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어딘가에 데이터 조각으로 저장되지만, 누군가에 의해 알고리즘 명령으로 호출되기 전까지 그 어떤 사건사적·사회사적 의미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어떤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남기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왜 특정의 데이터가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지 등에 관한 역사성과 객관성을 중시하는 역사기록학적 물음들은, 오늘날 인간 활동으로 뿔어져 나오는 비정형 데이터에 의존한 많은 닷컴 기업들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 데이터 취급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는 데이터 기업 자본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인간의 움직임과 활동, 감정의 흐름 모두를 실시간으로 저장해 필요에 의해 잘 짜인 알고리즘으로 원하는 정보 패턴이나 관계를 찾는 데 골몰한다. 진본성이나 공공성을 담지한 공식 기록을 선별해 남기려는 역사학적 관심사는, 이 새로운 무차별적인 기억과 감정적 흐름의 공장을 돌리는 데이터 권력 질서와 자주 경합하거나 때론 데이터 권력에 의해 억압당한다.

새로운 데이터 권력의 질서 속에서는 개별적 기록이 지닌 가치와 진실 등 그 사회사적 사건의 특수한 흔적들이 거의 완전히 지워진다. 지배적 알고리즘의 산식에는 개인적 차이, 감수성, 질감들이 무시되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부유하는 집단 욕망들의 경향과 패턴을 포착하는 것만이 중요하다.
- 공적이고 질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려는 역사기록학적 시도는 데이터 권력에 의해 방해받는다.
 - 거대한 기업을 경영하는 데이터 권력은 개인들의 섬세한 차이를 기록한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 데이터 가공을 통해 생존하는 데이터 기업은 알고리즘 산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한다.
 - 데이터 권력의 지배적 알고리즘을 수용함으로써 역사학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 역사학은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집단의 움직임을 파악하려 시도한다.

2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한나라 무제는 춘추학자 동중서의 헌책을 받아들여, 도가나 법가의 사상을 멀리하고 그때까지 제자백가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유가의 사상을 한나라의 정통 사상으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제자백가 중에서 유가가 정통 사상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을까? 당시 유가 외의 유력한 사상으로는 도가와 법가가 있었다. 법가는 법률에 의한 강제 지배를 국가 통치의 최상 형태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상은 전국시대 한비에 의해 이론화되고, 이사에 의해 시황제 치하 진나라의 통치에 실제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법에 의한 지배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국가 권력, 구체적으로는 강대한 군사력이나 용의주도하게 구축된 경찰 조직을 필요로 한다. 진나라의 시황제는 그것을 실현하여 중국 최초의 중앙집권적 국가를 만들었으나, 진나라는 곧 붕괴해 버리고 말았다. 법에 의한 지배를 유지하는 일이 국가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한나라 초기의 위정자나 사상가는 이러한 역사를 반성하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 가의는 「과진론」을 통해 진나라가 실행한 법치주의의 가혹함을 혹독하게 비난하였다. 그리고 항우와 치열한 천하 쟁탈의 싸움을 벌인 끝에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은 비용이 많이 드는 법가 사상을 채용할 만한 국가적 여유를 갖고 있지 못했다.

한편 무위자연을 주창하는 도가는 전란으로 피폐해진 한나라 초기의 국가 정세 및 백성들의 사정에 가장 적합한 사상이었다. 사실 문제 시대에 도가 사상이 일세를 풍미했던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결국 외부적 강제를 부정하는 도가 사상은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될 수 없었다. 한나라가 국력을 회복하고 국가의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도가 사상은 결국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등장한 것이 효제충신의 가족 도덕을 근간으로 하는 유가 사상이다. 당시 ‘리(里)’라고 불린 촌락 공동체는 생활 관습이나 가치관을 구현하는 ‘부로(父老)’와 일반 촌락민인 ‘자제(子弟)’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공동체 내부의 인간관계는 흡사 가족 생활이 연장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즉, 촌락 공동체에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유교적인 윤리나 규범이 지켜지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만약 국가가 유교적 권위를 승인하고 촌락 공동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윤리나 규범을 국가 차원에까지 횡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면 절대주의적인 황제 권력을 확립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었다. 부로를 존경하는 향리의 자제는 동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국가의 좋은 백성이 될 것이 틀림없었다. 무제는 가족 도덕이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그대로 기능할 수 있는 점에 매력을 느껴 유교를 국교로 정했던 것이다.
- 도가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약점이 있었다.
 - 한나라 초기에는 법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활발했다.
 - 한나라 가의에 의해 도가 사상이 사상계를 주도하게 되었다.
 - 유교가 국교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한나라의 촌락 공동체는 유교의 도덕규범을 준수하고 있었다.
 - 도가의 무정부주의적 성격은 한나라의 국가 정비를 정면에서 가로막았다.

헌법

1.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제헌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헌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ㄴ.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 정당의 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ㄷ. 제5차 개정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ㄹ. 제7차 개정헌법은 헌법위원회가 탄핵, 정당의 해산,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규정하였다.
 ㅁ. 제8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이 탄핵, 정당의 해산,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규정하였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2. 헌법재판소의 결정정족수가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권한쟁의심판의 인용결정
 ㄴ. 탄핵의 결정
 ㄷ.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 변경
 ㄹ.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ㅁ.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3.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 ②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바로 이들에게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직장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 ④ 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⑤ 직장 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에게도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위헌심판의 대상을 ‘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도 포함된다.
- ②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구 관습법은 비록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 ③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등 제반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가면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④ 입법자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과거의 완전 소급효 입장을 버리고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시점까지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부분 소급효로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보다는 정의에 더 중점을 둔 것이다.
- ⑤ 헌법재판소가 특정 형벌법규에 대하여 과거에 합헌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당해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므로, 합헌결정이 있었던 시점 이전까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5.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방송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시청자의 건전한 방송 비판 내지 의견제시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시청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ㄴ.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ㄷ.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ㄹ.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ㅁ.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6.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은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제2항의 기본권제한을 위한 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는 양립할 수 없다.
- ③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새로운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기능이나 기술 혹은 진단 및 치료방법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기존의 의료인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 ④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⑤ 헌법 제119조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7.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에 학원 강사 등의 보호자를 동승하여 운행하도록 한 것은 학원 등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거나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까지 허용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⑤ 의료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8.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기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소권의 남용이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권한쟁의심판 제도의 취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소속 정당 당직자 등의 회의개최 방해행위를 중용하거나 방조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소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소수당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면, 상임위원회 의사절차의 주재자로서 질서유지권과 의사정리권의 귀속주체인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 ③ 우리나라 국회의 의안 심의는 본회의 중심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역할은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 ④ 국회의원의 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본질적 권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⑤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위임된 것이다.

9.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과 행정부, 국무총리에 관한 헌법 규정의 해석상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제상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 내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③ 중앙행정기관이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어떤 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 설치의 형식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④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의 법이라 할 수는 없다.
- 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차장, 수사처검사의 임명권과 해임권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을 임명할 때 추천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 추천, 수사처장의 제청 등을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인사권은 형식적인 것이다.

10. <보기>에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기준이 같은 사안끼리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 ㄴ.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ㄷ.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ㄹ. 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법조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ㄷ), (ㄴ, ㄹ)
- ④ (ㄱ, ㄹ), (ㄴ, ㄷ)
- ⑤ (ㄱ, ㄴ, ㄹ), (ㄷ)

1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여 치료감호대상자의 치료감호청구권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치료감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한다.
- ㄴ.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 ㄷ.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형벌까지 동원해야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ㄹ. 종래 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단계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단계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주민의 건청취절차 또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한 번의 절차에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및 그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운영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환경상위해로부터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 ㅁ. 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그러한 시설에서 사육되고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도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ㄷ, ㅁ
- ④ ㄱ, ㄷ, ㄹ
- ⑤ ㄱ, ㄷ, ㄹ, ㅁ

12.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재판청구기간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과 관련하여 제소기간 또는 불복기간을 너무 짧게 정하여 재판을 제기하거나 불복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를 어렵게 한다면 재판청구권은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있다.
- ② 지방공무원이 면직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청구기간을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한 것은 일반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보다 짧기는 하나, 지방공무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형해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그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입법자는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행정청에 의한 자기 시정의 개연성, 문제되는 행정처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치절차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적 전치절차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 ⑤ 재판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은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된다.

1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기존에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도록 정한 법률조항은, 대상자에게 보안관찰처분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지나치게 장기간 형사처벌의 부담이 있는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④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⑤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법률조항은, 보다 완화된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그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4.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휴식을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됨에도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 ②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를 하게 하는 것이어서, 근로조건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 ③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⑤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1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하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수행자의 배우자에 대해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특별한 헌법적 보호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비례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 ㄴ.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ㄷ.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후혼의 취소가 가혹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후혼배우자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 ㄹ.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 없다.
- ㅁ. 헌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혼인’이란 양성이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승인받은 것을 말하므로,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그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① ㄱ(O), ㄴ(O), ㄷ(O), ㄹ(X), ㅁ(X)
- ② ㄱ(O), ㄴ(X), ㄷ(X), ㄹ(O), ㅁ(O)
- ③ ㄱ(X), ㄴ(O), ㄷ(O), ㄹ(X), ㅁ(X)
- ④ ㄱ(X), ㄴ(O), ㄷ(X), ㄹ(O), ㅁ(O)
- ⑤ ㄱ(X), ㄴ(X), ㄷ(X), ㄹ(O), ㅁ(O)

16.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에 따르면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법관의 판단 없이 인신구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영창처분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 ㄴ.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ㄷ.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신청, 판사의 발부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 보호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 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 ㅁ. 수사기관의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강제처분에 해당되므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만 받으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ㅁ

17.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고,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이와 같은 국회의장의 직무 중 의사정리권한에 속한다.
- ② 대체토론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소위원회 회부 전에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방향이나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 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 있다.
- ③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본회의에서 선거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
- ④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의안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⑤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한다.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폐지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 폐지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
- ②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당해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 ③ 명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법률조항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당해 법원이 기각결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면, 그 법률조항에 대해 당해 법원이 묵시적으로나마 위헌제청신청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 ④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간접 적용되더라도,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인정된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⑤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한 경우,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9.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출연을 통하여 정부의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② 사립유치원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여 수입 및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이 한정되는 등 엄격한 재무·회계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학교 체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
- ④ 사립유치원은 공교육이라는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운영재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재정지원 및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사립유치원의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
- ⑤ 사립유치원의 공통적인 세입·세출 자료가 없는 경우 관할청의 지도·감독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자유로운 회계처리 방법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하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대통령기록물 소관 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권한분장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ㄴ.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가운데 학생의 부모인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가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학부모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ㄷ. 헌법소원심판청구 시에 보충성 요건이 흠결된 경우라도,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전에 다른 법률에 규정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보충성 요건의 흠결이 치유될 수 있다.
- ㄹ.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 법령의 시행일이다.
- ㅁ.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비록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 ① ㄱ(O), ㄴ(O), ㄷ(O), ㄹ(X), ㅁ(O)
 ② ㄱ(O), ㄴ(X), ㄷ(O), ㄹ(O), ㅁ(O)
 ③ ㄱ(O), ㄴ(X), ㄷ(O), ㄹ(X), ㅁ(O)
 ④ ㄱ(X), ㄴ(O), ㄷ(O), ㄹ(O), ㅁ(X)
 ⑤ ㄱ(X), ㄴ(O), ㄷ(X), ㄹ(O), ㅁ(X)

21. 국회의 의안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나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 없이 직권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된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음에도 단지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③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④ 예비군 교육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대원이 훈련 과정에서 식비, 여비 등을 스스로 지출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부담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예비군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일일수익과 같은 기회비용 역시 경제적인 기회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함에 있어 그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3.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하는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는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통신의 비밀까지도 제한한다.
- ②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통신으로 발생하는 외형적인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계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시간·통신장소·통신횟수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해야 한다.
- ③ 통신의 중요한 수단인 서신의 당사자나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수 없으므로 서신의 검열은 원칙으로 금지되나, 수형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대한 검열로 인하여 수형자의 통신의 비밀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이며 통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수용자가 집필한 문서의 내용이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등 우려가 있는 때 교정시설의 장이 문서의 외부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미 표현된 집필문을 외부의 특정 상대방에게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은 통신의 자유로 보아야 한다.
- ⑤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주체의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한 법률조항은,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절차적 통제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보주체인 전기통신가입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24.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 ②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등을 침해 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 법률조항은 직접적 수범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기 때문에, 정보게재자는 제3자에 해당하여 위 임시조치로 정보게재자가 게재한 정보는 접근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더라도 정보게재자의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한 것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

25. 헌법상 통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운데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에 관하여 남북관계의 전문기관인 통일부장관에게 그 승인권을 준 법률조항은 국민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 ② 북한을 법 소정의 “외국”으로, 북한의 주민 또는 법인 등을 “비거주자”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
- ③ 1992년 발효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1990년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라는 행위 주체 사이에 ‘투자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이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⑤ 헌법의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지만 단순한 선언규정에 그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들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

경 제 학

1. GDP 디플레이터와 CPI(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업 또는 정부에 의해 구입된 물품가격 상승은 GDP 디플레이터에 반영되나 CPI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 ② 해외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가격의 인상은 CPI에 영향을 미치나 GDP 디플레이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GDP 디플레이터와 CPI는 재화가격에 고정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도출된다.
- ④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된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가격을 측정한다.
- ⑤ CPI는 라스파이레스 지수(Laspeyres Index)이므로 농산물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충격을 과대평가한다.

2. 어떤 재화의 공급곡선은 $Q = -4 + P$ 이고 수요곡선은 $Q = 20 - P$ 이다. 한편 이 재화를 생산하는 데 따른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은 $C = 2Q$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 , Q 는 각각 이 재화의 가격, 수량이다.)

- ①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균형 생산량은 7이다.
- ②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균형 가격은 10이다.
- ③ 환경오염 비용까지 고려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6이다.
- ④ 환경오염 비용까지 고려한 사회적 최적 가격은 13이다.
- ⑤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사회적 후생의 순손실의 크기는 0.5이다.

3. 어떤 나라의 커피 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한다. 다음 중 이 나라의 정부가 커피에 대해 조세를 부과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위당 t 원의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했을 때의 커피 거래량과 소비자에게 부과했을 때의 커피 거래량은 동일하다.
- ② 커피 가격의 $t\%$ 의 세율로 종가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했을 때의 커피 거래량과 소비자에게 부과했을 때의 커피 거래량은 동일하다.
- ③ 종량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면 수요곡선은 아래로 평행이동한다.
- ④ 종가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면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 ⑤ 종가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진다.

4. 자동차를 생산하는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는 $Q = L^{3/4}K^{1/2}$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L , K 는 각각 노동, 자본이다.)

- ① 자동차의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곳에서 자동차의 생산량을 결정한다.
- ② 노동의 가격과 자본의 가격이 같다면 노동을 더 많이 투입한다.
- ③ 확장경로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나타난다.
- ④ 이 기업의 생산기술은 규모수익체증의 특성을 가진다.
- ⑤ 생산요소 간 대체탄력성은 항상 일정하다.

5. 생산량이 자연율 수준에 있는 장기균형의 경제를 가정하자. 한국은 행이 통화공급을 증대시킬 경우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IS-LM모형에서 단기적으로 이자율은 낮아지고 생산량은 증가한다.
- ② IS-LM모형에서 실질이자율이나 생산량 수준에서 장기적인 변화는 없다.
- ③ AD-AS모형에서 장기적으로 생산량은 자연율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물가수준은 상승한다.
- ④ 생산량이 자연율 수준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필립스곡선에서 실업률은 자연율 아래로 감소한다.
- ⑤ 장기적으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여 단기 필립스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한다.

6. A제품의 우리나라 가격은 2,600원, 미국 가격은 2달러, 그리고 원화의 달러 대비 명목환율은 1,200원/달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거래비용이 없다면 현재 재정거래(Arbitrage)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실질환율에 의하면 국내의 A제품 1단위는 미국의 A제품 13/12단위와 교환될 것이다.
- ③ 구매력평가설에 따른 원화가치는 저평가되어있다.
- ④ 구매력평가설에 따른 명목환율은 1,200원/달러이다.
- ⑤ 구매력평가설에 따른 명목환율과 실제 명목환율의 차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적자일 것이다.

7. 2기간을 사는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 = C_1^\alpha C_2^{1-\alpha}$ 로 주어진다 고 하자. 한편 이 소비자의 1기 소득은 Y , 2기 소득은 0이며, 이자율은 r 로 주어진다. 이 소비자의 효용극대화를 달성하는 소비 및 저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C_1 , C_2 는 각각 1기 소비와 2기 소비를 나타내며, $0 < \alpha < 1$, $0 < r < 1$ 이다.)
- ① 1기의 저축률은 α 이다.
 - ② 1기의 소비는 $(1-\alpha)Y$ 이다.
 - ③ 2기의 소비는 $(1-\alpha)Y$ 이다.
 - ④ 1기 소비의 크기는 이자율과 무관하다.
 - ⑤ 2기 소비의 크기는 이자율과 무관하다.

8. 보몰(W. Boumol)의 거래적 화폐수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은 $\frac{1}{2}$ 이다.

ㄴ.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화폐수요는 감소한다.

ㄷ.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회비용이 증가하므로 화폐수요가 감소한다.

ㄹ. 사회 내의 총소득이 일정할 때 소득분배가 균등해지면 화폐수요가 감소한다.

ㅁ. 거래적 화폐수요에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ㄷ, ㅁ

9. 다음 글에 따를 때 기업이 설정하는 단일가격제도 하에서의 단일요금, 이부가격제도 하에서의 회원권 가격과 회원전용요금으로 옳은 것은?

어느 지역에서 콘도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이 독점기업의 총비용함수는 $TC(Q) = 20Q$ 이다. 이 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요함수는 $Q = 250 - \frac{1}{2}P$ 로 동일하다. 이 기업은 현재 1박당 일정액의 요금만 부과하는 단일가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회원권 판매와 1박당 회원전용요금을 부과하는 형태의 이부가격제도로 변경하고자 한다. 독점기업이 이부가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회원권을 소지한 회원만 숙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Q , P 는 각각 숙박일수, 1박당 가격이다.)

	단일요금	회원권 가격	회원전용요금
①	20	28,800	260
②	130	28,800	130
③	260	57,600	260
④	260	28,800	20
⑤	260	57,600	20

10. 어떤 도시의 시민들은 대형마트와 골목시장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정부는 골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가격의 10%를 할인해주는 보조정책을 시행하였다. <보기>에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이후 나타나는 효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다.)

<보 기>

ㄱ. 골목시장의 매출이 증가한다.

ㄴ. 골목시장의 이윤증가가 대형마트의 이윤감소보다 크다.

ㄷ. 소비자들의 생활용품에 대한 전체 지출이 증가한다.

ㄹ. 정부의 보조금 지출보다 소비자들과 대형마트 및 골목시장의 후생증가가 더 크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1. 소득 100으로 단골 상점에서 두 재화 X, Y만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있다. 단위당 가격은 X가 10, Y가 5이다. 어느 날 그 상점에서 X를 5단위보다 많이 구입하면 5단위 초과분에 대해 가격을 절반으로 할인해주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행사에 따른 소비자의 예산집합 면적의 증가율은?
- ① 10%
 - ② 15%
 - ③ 20%
 - ④ 25%
 - ⑤ 30%

12. A국가와 B국가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두 국가의 자동차 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관찰되었다고 한다. 두 국가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졌을 때 각 나라들의 자동차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 두 국가 모두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A국가의 자동차 가격이 B국가의 자동차 가격보다 높다.
- B국가의 자동차 소비량이 A국가의 자동차 소비량보다 많다.

- ① A국가의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 ② B국가의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 ③ A국가의 사회후생이 무역 전보다 감소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 ④ A국가의 무역 후의 자동차 가격이 무역 전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다.
- ⑤ A국가의 자동차 소비량이 B국가의 자동차 소비량보다 많아질 수 있다.

13. 소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항상소득과 관련된 한계소비성향이 일시소득과 관련된 한계소비성향보다 더 작다.
- ②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소비자는 일생 동안의 소득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소비수준을 선택한다.
- ③ 절대소득가설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의 절대적 크기가 소비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 ④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경기 호황기에는 일시소득의 증가로 저축률이 상승한다.
- ⑤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똑같은 처분가능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나이에 따라 서로 다른 한계소비성향을 보인다.

14. 생산함수가 $F(L, K) = \sqrt{LK}$ 인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노동의 가격이 $w=4$, 자본의 가격이 $r=4$ 일 때 최소의 비용으로 10단위를 생산한다. 노동의 가격이 $w=1$ 로 하락하고 생산량을 2배로 늘리는 경우 이 기업의 비용 변화로 옳은 것은? (단, L, K 는 각각 노동, 자본이다.)

- ① 20 감소한다.
- ② 10 감소한다.
- ③ 변하지 않는다.
- ④ 10 증가한다.
- ⑤ 20 증가한다.

15. IS곡선은 우하향하고 이자율은 중앙은행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폐쇄경제에서 다른 항목은 변화 없이 정부지출이 100조 증가한다고 하자. 소비자는 소득 Y 의 20%를 소득세로 납부하며, 한계소비성향은 0.75이다. 이 때 가격이 고정된 단기에 발생한 결과로 옳은 것은?

- ① 소득 Y 는 400조만큼 증가할 것이다.
- ② 민간소비는 240조만큼 증가할 것이다.
- ③ 민간저축은 60조만큼 증가할 것이다.
- ④ 정부의 소득세 수입은 50조만큼 증가할 것이다.
- ⑤ 정부저축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16. 어떤 개인이 2가지 재화 X 와 Y 를 각각 Q_X, Q_Y 만큼 생산하고 있다고 하자. 가격수용자인 이 개인은 X 와 Y 를 시장가격에 판매 혹은 구매함으로써 X 와 Y 를 C_X, C_Y 만큼 소비하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Q_X, Q_Y 가 주어진 상태에서 X 의 가격이 상승할 때 이 개인에게 발생할 변화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X 와 Y 의 소비에 대한 무차별곡선은 일반적인 형태를 가지며 불확실성은 없다.)

<보 기>

- ㄱ. 가격 상승 전에 $C_X < Q_X$ 이었다면 가격 상승 이후 이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한다.
- ㄴ. 가격 상승 전에 $C_X = Q_X$ 이었다면 가격 상승 이후 이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한다.
- ㄷ. 가격 상승 전에 $C_X = Q_X$ 이었다면 가격 상승 이후에는 $C_X < Q_X$ 가 선택된다.
- ㄹ. 가격 상승 전에 $C_X > Q_X$ 이었다면 가격 상승 이후에는 $C_X > Q_X$ 가 선택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7. 어느 기업의 평균비용함수가 $AC(Q)=Q^2-20Q+150$ 이다. 이 기업의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고정비용이 존재한다.
 ㄴ. 한계비용이 최저가 되는 생산량은 7이다.
 ㄷ. 한계비용이 증가하는 구간 전체에서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한다.
 ㄹ.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에서 총비용은 500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ㄷ, ㄹ

18. 인구가 일정하고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R. M. Solow)의 경제성장모형을 고려하자. A국의 생산함수는 $Y=L^{1/3}K^{2/3}$, 저축률은 60%,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연 10%이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의 1인당 자본량(k^*)과 황금률(golden rule) 균제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k_g)은? (단, L , K 는 각각 노동, 자본이다.)

- $\underline{k^*}$
 $\underline{k_g}$
- ① 36 $\left(\frac{3}{20}\right)^3$
- ② 36 $\left(\frac{20}{3}\right)^3$
- ③ 216 $\left(\frac{3}{20}\right)^3$
- ④ 216 $\left(\frac{20}{3}\right)^3$
- ⑤ 216 $\left(\frac{10}{3}\right)^3$

19.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플레이션 반영 비율의 차이에서 오는 상대가격의 변화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 ② 실제물가상승률이 예상된 물가상승률보다 더 큰 경우, 채무자는 이득을 보고 채권자는 손해를 본다.
- ③ 프리드만(M. Friedman)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다.
- ④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경우이다.
- ⑤ 먼델-토빈효과(Mundell-Tobin effect)가 나타나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민간투자가 감소한다.

20. 다음은 갑과 을의 전략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 구조이다. 갑이 전략 A를 선택할 확률을 p , 을이 전략 C를 선택할 확률을 q 라고 하자. 혼합전략 내쉬균형 하에서의 p , q 로 옳은 것은? (단, 보수 행렬의 괄호 안 첫 번째는 갑의 보수, 두 번째는 을의 보수를 나타낸다.)

		을	
		C	D
갑	A	(50, 50)	(80, 20)
	B	(90, 10)	(20, 80)

- p
 q
- ① 0.7 0.6
- ② 0.6 0.7
- ③ 0.4 0.3
- ④ 0.5 0.5
- ⑤ 0.3 0.4

21. A국에서는 한 단위의 노동으로 하루에 쌀 4kg을 생산하거나 옷 4벌을 생산할 수 있고, B국은 한 단위의 노동으로 하루에 쌀 3kg을 생산하거나 옷 1벌을 생산할 수 있다. 두 국가의 부존 노동량은 동일하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A국은 쌀과 옷 생산에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ㄴ. A국은 쌀에 B국은 옷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ㄷ. A국의 쌀 1kg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1벌이다.
 ㄹ. 두 국가 사이에 교역이 발생하면 A국이 쌀과 옷 모두를 B국에 수출한다.
 ㅁ. A국과 B국 모두 교역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ㅁ
- ④ ㄱ, ㄴ, ㄷ
- ⑤ ㄷ, ㄹ, ㅁ

22. 리카도의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 ① 자원배분에 영향이 없다.
 - ② 이자율이 상승한다.
 - ③ 이자율이 하락한다.
 - ④ 총수요가 증가한다.
 - ⑤ 통화량이 증가한다.

23. 어떤 복점시장의 수요함수와 두 기업의 비용함수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고 하자. 다음 중 이 시장에서 쿠르노 복점의 내쉬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요함수 $P=a-Q$
- 기업 1의 비용함수 $C_1=c_1\times Q_1$
- 기업 2의 비용함수 $C_2=c_2\times Q_2$
- $Q_1+Q_2=Q$
- $c_1 < c_2$

(단, 여기서 P , Q_1 , Q_2 , C_1 , C_2 는 각각 가격, 기업 1의 생산량, 기업 2의 생산량, 기업 1의 생산비용, 기업 2의 생산비용을 나타내며, a , c_1 , c_2 는 각각 0보다 큰 상수이다.)

- ① 기업 1이 생산량 Q_1 을 1만큼 늘린다면 기업 2는 Q_2 를 1만큼 줄일 것이다.
- ② 기업 2가 생산량 Q_2 를 1만큼 늘린다면 기업 1은 Q_1 을 1보다 더 큰 폭으로 줄일 것이다.
- ③ c_1 이 하락하면 Q_1 과 Q_2 모두 증가한다.
- ④ 내쉬균형을 만족하는 (Q_1, Q_2) 의 조합은 두 개다.
- ⑤ 내쉬균형에서 $Q_1>Q_2$ 가 된다.

24. 고품질과 저품질, 두 가지 유형의 TV가 거래되는 중고 TV 시장이 있다. 판매자는 자신이 파는 중고 TV의 품질을 알고 있으나 구매자는 중고 TV의 품질을 구매 전에는 알지 못한다. 판매자의 수용용의금액과 구매자의 최대지불용의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고, 구매자는 위험중립적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알려져 있다. 전체 중고 TV 시장에서 고품질의 중고 TV가 차지하는 비중을 P라고 할 때, 고품질과 저품질의 중고 TV가 모두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한 P의 최솟값은?

(단위: 만원)

	고품질 TV	저품질 TV
구매자의 최대지불용의금액	160	60
판매자의 수용용의금액	125	30

- ① 50%
- ② 55%
- ③ 65%
- ④ 70%
- ⑤ 75%

25. 어떤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개별 기업의 장기평균비용(LTAC)과 장기한계비용(LTMC)은 아래와 같이 생산량(q)의 함수로 동일하다. 또한 가격(P)과 총수요량(Q)의 관계는 아래와 같은 함수로 주어진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LTAC=q^2-10q+40$
- $LTMC=3q^2-20q+40$
- $P=25-0.1Q$

- ① 장기균형에서 개별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은 5이다.
- ② 장기균형에서 가격은 15이다.
- ③ 장기균형에서 한계비용은 15이다.
- ④ 장기균형에서 시장에 남아 있는 기업의 수는 10개이다.
- ⑤ 장기균형에서 개별 기업의 판매수입은 75이다.